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년 5월 20일(금) 09:00 배포시
담당자	김민호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144, minhokim@kdi.re.kr) 서주연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연구원 (044-550-4147, jyseo410@kdi.re.kr)
배포일시	2016년 5월 20일(금)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2016 마이크로 데이터 기반 한국경제 연구 컨퍼런스

- 일 시: 2016년 5월 20일(금) 09:30~16:30
- 장 소: 웨스틴조선서울 코스모스룸(2층)
- 주 최: KDI · 서강대학교 · 통계청 · 한국경제학회
- 주 관: KDI
- 후 원: 한국경제신문

□ KDI는 5월 20일 '2016 마이크로 데이터 기반 한국경제 연구 컨퍼런스'를 개최, 한국의 경제 환경과 제도, 지역과 기술, 기업동학과 생산성 등에 관한 마이크로 데이터 기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 간 소통 및 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한 학술 및 정책 연구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컨퍼런스는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현재와 미래’, ‘경제 환경과 제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지역과 기술’, ‘기업 동학과 생산성’ 주제의 네 개 세션으로 구성

- 1세션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에서는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확대, 국가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의 방향, 미국의 마이크로 데이터 기반 최근 연구 동향 등에 관한 발표를 중심으로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
- 2세션 ‘경제 환경과 제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중소기업의 규모, 대기업과의 거래비중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기업의 1인당 생산량 또는 노동생산성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표가 진행
- 3세션 ‘지역과 기술’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국가 간 수직적 통합과 산업 R&D 투자집중도와의 연관성, 전국 대상 지역 간 기업이동 패턴, 교통인프라 투자와 기업 활동 범위에 관한 발표를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모색
- 4세션 ‘기업 동학과 생산성’에서는 경기변동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중국과의 교역확대에 따른 산업 및 사업체의 생산성 변화, 진입·퇴출이 생계형 개인서비스업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표를 중심으로 기업 동학과 생산성 변화의 연관성을 분석

□ 김준경 원장은 축사에서 “마이크로데이터는 세밀한 수준에서 다양한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활용가치가 높은 자료이지만, 국내에서의 마이크로 데이터 기반 연구는 최근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라며 “보다 정교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통계청의 역할과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함.

- 컨퍼런스에는 유경준 통계청 청장, 김준경 KDI 원장, 조장욱 한국경제학회 회장, 김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학장, 안상훈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김민호 KDI 연구위원, 이재형 KDI 전문위원, 은순현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이창근 KDI 연구위원,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 박우람 KDI 연구위원, 허정 서강대학교 교수,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홍성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장희 제주대학교 교수 등 관련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가 참석

- ❖ 첨부 1 프로그램
- ❖ 첨부 2 발표요약

❖ 첨부 1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09:10~09:30	등록 및 네트워킹
09:30~09:50	<p>개회식</p> <p>개회사 김준경 KDI 원장</p> <p>축사 유경준 통계청장 조장욱 한국경제학회 회장 김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학장</p>
09:50~10:50	<p>세션 1.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현재와 미래</p> <p>사회 이인실 서강대학교 교수</p> <p>발표 1.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제언 이재형 KDI 전문위원</p> <p>발표 2. 국가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 방향 은순현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p> <p>발표 3. 미국의 최근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 연구 동향 이창근 KDI 연구위원</p>
11:00~12:00	<p>세션 2. 경제 환경과 제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p> <p>사회 이근희 한국생산성본부 연구위원</p> <p>발표 4. 기업 간 거래와 연구개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과 산업집중도를 중심으로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p> <p>발표 5. 근로시간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제조업을 중심으로 박우람 KDI 연구위원</p> <p>토론 권혁욱 일본대 교수 이창근 KDI 연구위원</p>
12:00~13:00	오찬

시 간	내 용
13:00~14:30	<p>세션 3. 지역과 기술</p> <p>사 회 현혜정 경희대학교 교수 발표 6. 국가간 수직적 통합과 기술: 재산권이론에 관한 새로운 근거 허 정 서강대학교 교수 발표 7. 기업의 지역 간 이동분석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8. 교통인프라 투자와 신규 제조업체 입지: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안상훈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p> <p>토 론 조재한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혜정 경희대학교 교수 남윤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p>
14:40~16:10	<p>세션 4. 기업 동학과 생산성</p> <p>사 회 한진희 가천대학교 교수 발표 9. 경기변동이 기업수준 일자리 조정에 미치는 영향 홍성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10. 한중 교역확대가 한국 제조업에 미친 영향: 총요소생산성을 중심으로 김민호 KDI 연구위원 발표 11. 진입퇴출이 생계형 개인서비스업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조장희 제주대학교 교수</p> <p>토 론 김세움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혜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희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p>

❖ 첨부 2. 발표요약

세션 1.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현재와 미래

발표 1.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제언

이재형 KDI 전문위원

1.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의의

- 마이크로 데이터는 사회 현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선진국에서는 연구에 마이크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집계 데이터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며
 - 국가의 중요한 정보 자원인 통계 효율성 향상에 기여
 -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 선진국들은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많은 연구자들이 마이크로 데이터를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국가 통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현황

- 통계청은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http://mdis.kostat.go.kr>)’를 통해 통계청과 일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

- 통계청: 사업체통계(11종), 인구통계(5종), 가구통계(12종), 농림어업부문(12종) 등
- 여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 미국, 호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하고자 노력

3.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과제

-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바, 통계청은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와 기술 여건을 정비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 국가 차원의 통합적 마이크로 데이터 보관·관리·제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통계제공기관과 통계이용자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 이용자들은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 및 분석을 통해 파악된 통계의 문제점, 보완 사항, 개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통계 데이터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발표 2. 국가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 방향

은순현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 조사통계기초자료(마이크로 데이터)의 통합 DB 확대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 행정자료 수집과 맞춤형 정책지원 통계 개발,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등 통계기초자료 서비스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조사통계와 행정통계 연계활용과 2차 자료와의 연계 기반 조성,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제공 확대를 위한 노력 또한 기울이고 있음.
- 통계기초자료 서비스 개선 과제는 개인 및 사업체 정보보호 인식강화, 국가 자산정보 유실가능성 대비, 자료의 품질 관리 등임.
 - 개인 및 사업체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로 통계적 비밀보호기법 처리 강화와 식별가능성이 있는 자료제공에 대한 제한적(법적)조치 강화 노력이 필요
 - 국가 자산정보의 유실 가능성에 대비, 전자문서를 암호화하거나 외부로 나가는 전자문서의 경로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 작성 통계 원자료에 대한 데이터 클리닝에 한계가 있으며 행정자료에 대한 정비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

발표 3. 미국의 최근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연구 동향

이창근 KDI 연구위원

-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은 경제주체의 이질성을 고려한 연구를 가능케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 우리나라 정책 현안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최근 마이크로 데이터 연구 사례를 소개
 - 미국의 노동시장 이동성과 경제적 성과, 대량실직 근로자의 이후 경로 추적, 고용주·근로자 연결 자료를 활용한 창업에 관한 연구 소개
- 노동시장 이동성과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미국경제의 높은 생산성과 고용지표를 이끈 주된 원인이 노동자 및 일자리 이동성인 것으로 나타나
 - 2000년대 이후 경제적 이동성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의 역동성 저하를 의미함. (단, 금융위기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노동력 재배치는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대량실직 근로자의 실직 이후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2008년 미국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대량실업의 영향을 분석
 - 실업보험 등 행정자료를 이용해 나이, 교육수준 등의 인구 특성에 따른 실업, 재취업 및 교육훈련의 효과성 차이를 살펴봄.
 -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실업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과거 유사한 경험에 대한 추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 또한 고용주·근로자 연결 자료를 활용한 창업 연구에서는 기업 및 사업체 DB와 행정자료를 결합해, 어떤 사람이 더 창업을 잘하고, 사후성과가 좋으며, 신규기업은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창업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세션 2. 경제 환경과 제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발표 4. 기업간 거래와 연구개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과 산업집중도를 중심으로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

-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대기업거래 비중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중소기업의 규모, 기업이 속한 산업의 시장구조, 기술 수준 등에 따라 분석
-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 거래 비중이 중소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것으로 나타남.
 - 100인 이하의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거래비중이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100인 이상 300인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에 따라 대기업거래비중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높은 경우, 대기업거래비중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낮은 경쟁적 시장에서는 대기업거래비중이 높을수록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늘어나는 결과가 확인됨.

- 기술수준별 분석을 통해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대기업거래비중이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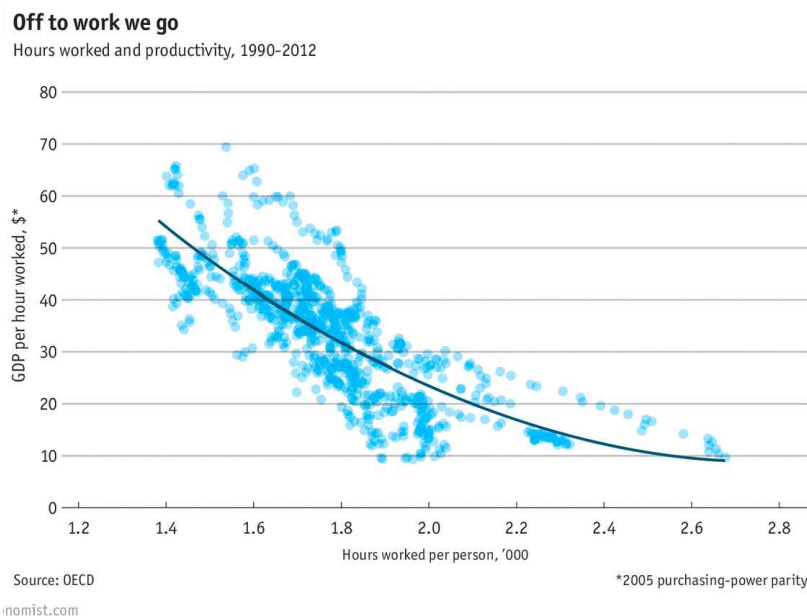
- 기업 간 거래의 미시적 구조가 중소기업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기업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기업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실증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발표 5. 근로시간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제조업을 중심으로

박우람 KDI 연구위원

-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2015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길어 2위에 오름.
- 현 정부는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음.
 -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68시간(법정근로 40 + 연장근로 12 + 휴일근로 16)까지 가능한 근로 시간을 주당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 + 연장근로 12)으로 단축
 - 단, 2023년까지는 주당 최대 60시간(법정근로 40 + 연장근로 12 + 특별연장근로 8)을 한시적으로 허용
-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함.
-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박우람, 박윤수(2015)는 2004~2008년 기간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의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한 정책(주 40시간 근무제)이 제조업 사업체의 1인당 생산량(또는 노동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

- 2000년부터 2012년 기간 중 존속한 종사자 2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
 - 서비스업체는 생산성 측정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종사자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는 자본재에 대한 통계가 부정확하고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
-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 근무제)이 제조업 사업체의 1인당 생산량을 하락시켰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음.
- 단, 종사자 20인 이상의 비교적 우량한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일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근로시간은 생산량 증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해외 연구결과와도 일치
- 1990~2012년 OECD 회원국의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노동생산성은 떨어지는 경향을 발견 할 수 있음. (아래 그림 참조)



출처: 이코노미스트 2013년 9월 24일자 기사

- 국가별 비교를 통해 근로시간과 생산성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미시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인데, 최근 노동경제학자인 스탠포드대학교 펜카벨 교수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군수물자 공장의 생산기록을 분석,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분은 점차 감소하여 근로시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생산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함.
- 과도한 근로시간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됨.

세션 3. 지역과 기술

발표 6. 국가 간 수직적 통합과 기술: 재산권이론에 관한 새로운 근거

허 정 서강대학교 교수

- 기업 수준 데이터를 활용,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간 수직적 통합의 재산권이론을 분석
- 수직적 통합 분석을 위해 한국 및 국내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한 국가의 R&D 투자집중도를 활용
 - 국내생산산업의 R&D 투자집중도와 해외공급산업의 R&D 투자집중도 데이터를 모두 활용
- 국내생산산업의 R&D 투자집중도가 높아질수록 해외공급산업의 수직적 통합이 강화되며 해외공급산업의 R&D 투자집중도가 높은 경우에는 후방 수직적 통합이 낮아짐을 확인
 - 본 연구는 생산자들의 투자와 공급자들의 투자 모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특징
- 한국기업이 진출한 국가들은 주로 아시아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다국적기업의 국가 간 수직적 통합에 대한 효과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설명 가능

발표 7. 기업의 지역 간 이동분석

정운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지역산업입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동의 원인 및 방식에 관한 분석이 필수
 - 수도권기업 지역이전 지원정책으로 수도권기업의 이동 현황은 파악되고 있지만 기업의 수도권 내·비수도권 간 이동 현황, 이동기업의 특성 등은 파악되지 않는 상황
- 전국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역 간 이동 패턴 및 이동 기업의 특성 등을 분석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입지정책 수립에 기여코자 함.
 - 기업의 지역 간 이동 패턴, 창업을 통해 기업이 집적하는 지역의 특성, 이동 및 창업기업의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산업입지정책의 대상과 수단을 구체화
 - 또한, 기업이동요인과 고용창출효과 분석을 통해 기업유인요소 및 지역고용경제 파급효과를 제시, 지역별 맞춤형입지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제시
- 낮은 이동성, 근거리 이동, 소규모 기업의 이동유연성, 업력이 낮은 기업의 이동유연성 등의 기업 이동 특징을 지닌 우리나라는 신규산업집적지 조성을 위한 입지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임.
- 기업이동을 시도별 혹은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1 대핵 1 중핵 3 소핵의 주변지역 이동특성'이 발견
 -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충남권, 광주-전남권 등 5개 권역 내에서 기업의 지역 간 이동이 나타남.

- 권역 간 이동이나 권역과 거리가 먼 지역으로의 이동은 제한적, 신규산업집적지 조성은 5개 권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신규산업집적지는 기존 대도시나 산업집적지에 인접해 있는 곳에 조성해야 하며 교통망을 잘 갖추어야 함.

□ 기업의 지역 간 이동정책뿐 아니라 기업의 창업지원정책을 다양화해 창업을 유도할 필요 있음.

□ 지역 전략사업, 연계협력사업, 특화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창업정책 과제임.

발표 8. 교통인프라 투자와 신규 제조업체 입지: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안상훈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 서해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인프라 투자가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을 신규 제조업체 입지 변화를 통해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모색
 -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2001년 전후 10년간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설정하고 광공업 마이크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변수들을 읍·면·동 수준에서 시계열로 연결
 - 신규 고속도로 건설이 신규 제조업체 입지 선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기술 수준이나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신규 제조업체의 입지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 또한, 제조업체의 평균임금, 평균지가, 기존 업체의 집적으로 인한 지역별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가 신규 제조업체의 입지 선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
 - 평균임금은 첨단산업의 입지 선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기업의 기술수준이 낮아질수록 평균임금은 신규 제조업체 입지 선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평균지가는 기술수준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신규 제조업체 입지 선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기술수준에 따른 집적효과는 입지 선정의 중요 변수로 작용

세션 4. 기업 동학과 생산성

발표 9. 경기변동이 기업수준 일자리 조정에 미치는 영향: 기업특성별 이질적 반응을 중심으로

홍성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1992~2012년 한국의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 경기변동에 따른 기업별 고용 조정 반응을 분석
- 경기 변동과 고용증가율 분포의 평균 및 왜도 간에는 경기순행적 관계, 표준편차와 첨도 간에는 뚜렷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 고용 증가율 분포의 각 백분위별 고용 증가율과 GDP 성장률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용증가율 분포에서 양극단 구간에 위치한 기업이 평균 부근에 위치한 기업에 비해 경기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
 - 고용 증가율 분포 상의 기업 위치에 따라 경기에 대한 반응이 달라
- 고용의 상향 조정 크기는 경기순행적이며, 이러한 특성은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 한편,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 조정크기는 고용이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비대칭적 특성을 지님.
-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고용 조정크기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 첨단기술 기업의 경우, 경기 여건보다는 기업고유의 내부 특성이 고용 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 한편, 중기술 및 고기술 기업의 경우, 전체 추정결과와는 반대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고용 조정크기가 경기 변동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

□ 정책 시사점

- 경기변동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기업의 성장 턴, 규모, 업종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 따라서, 경기변동에 따른 기업 안정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별 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함.

발표 10. 한중 교역확대가 한국 제조업에 미친 영향: 중요소생산성을 중심으로

김민호 KDI 연구위원

- 1991~2012년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심화된 경쟁이 국내 제조업 사업체들의 생산성과 고용, 진입과 퇴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
-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 개별 사업체의 중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 이를 산업단위로 집계해 산업 생산성을 추정
 - 산업별로 수입침투율 수준과 증가율이 다른점을 이용, 경쟁이 심한 산업에 속한 사업체의 생산성, 고용, 진입과 퇴출을 분석
- 수입침투율 분석결과, 중국과의 경쟁이 심한 산업 내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들이 보다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보임.
 - 중국의 수입침투율이 높은 산업 내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은 퇴출되며, 진입 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음.
 - 중국과의 경쟁이 진입과 퇴출을 통한 자원재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중국과의 경쟁심화로 국내 제조업은 산업별 부가가치 및 고용 증가율의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어, 고용 증가가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
 - 중국과의 경쟁이 심할수록 산업의 생산성 증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 중화학 공업 중 중국과의 경쟁이 심한 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 증가율을 보여 생산성 제고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
- 1990년대와 비교해 2000년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크게 감소했고, 경공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증가, 중화학공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 중화학 공업에 속한 사업체들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생산성 제고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가능성 존재
 - 또한 진입과 퇴출을 통한 구조조정도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음을 확인

발표 11. 진입퇴출이 생계형 개인서비스업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조장희 제주대학교 교수

- 창업 과밀업종 억제 정책의 대상이 된 체인화 편의점, 비주류음료점업, 치킨전문점업 등 15개의 주요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2005~2010년 지역 서비스업 시장에서 나타난 진입퇴출이 총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정책 도입 이전 상황을 분석, 해당 산업해당 산업이 과당경쟁 상태라는 우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2005년도 서비스업 총조사와 201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활용, 22,410개의 읍면동-세세분류 관측치를 분석한 결과, 진입률과 퇴출률 모두 노동생산성 성장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 업종별 차이를 고려한 부분표본 분석 결과, 업종과 관계없이 진입률은 노동생산성 성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퇴출률과 노동생산성 성장은 스낵 및 기타 서비스업종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식당 및 유통 업종에서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음.
 - 읍면동 내 영세 서비스업 시장에서 나타난 활발한 진입퇴출이 시장의 효율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 서비스업 성장을 위해서는 활발한 신규 진입을 통한 기존 상인들의 자체경쟁력 확보와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 중심으로의 구조변화가 필요

- 현 정책은 자영업이 과당경쟁 상태에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기존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신규 창업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춤.
-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활발한 진입퇴출 과정이 지역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연구를 통해 발견